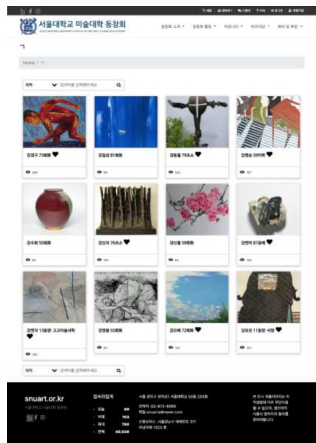




1 본회소식

동문아카이브 확대 및 게재신청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해 온라인동문전 'ART ON THE LINE' 개최와 동문작품집 '서울대미술인' 발간에 이어 본회 홈페이지(snuarta.or.kr/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에 동문작품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동문전 종료 후 홈페이지로 전환해 공개한 아카이브에는 온라인전 참가회원 외에 작고회원을 보완해 현재 약 600명의 작품 및 약력이 게재 되어 있으며 (하단 명단참조). 방문횟수 1일 최대 780회, 1일 평균 100여회를 기록, 지금까지 방문횟수는 총 4만여회에 이르고 있다.

본회는 게재대상을 기존의 시각예술작품 외에 영화,공연,저서 등 창작물은 물론, 운영사업체나 프로젝트까지 확대해 전 동문들을 아우르는 아카이브를 제작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회 메일(snuarta@naver.com)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창작물은 홈페이지 아카이브에 사업관련은 홈페이지 비즈코너에 게재하게 된다. 게재에 따른 회원부담은 따로 없으나 동창회비(평생회비또는 21년도 회비) 납부 후 신규게재, 또는 기존정보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게재신청

메일주소 : snuarta@naver.com

제출자료 : 이름(학번/과), 약력, 창작물 또는 사업관련 이미지(3장)와 캡션
게재대상 : 회비납부회원(회비납부안내는 본지4P 공지사항 참조)

문의 : 02-872-5065

게재동문 명단(4월15일 현재)

강경구(73회화) 강길성(81회화) 강동철(79조소) 강명순(59미학) 강수화(55회화) 강신자(76조소)
강신철(59회화) 강연미(87공예) 강연지(13동양) 강영봉(55회화) 강요배(72회화) 강유진(11동양)
강재희(84동양) 강태석(57회화) 강혜정(12동양) 고명진(77응미) 고문자(62응미) 고완석(84동양)
고진한(83서양) 공성훈(83서양) 광순화(72응미) 광영권(75응미) 권기윤(74회화) 권녕숙(57회화)
권달술(62조소) 권대훈(90조소) 권순일(57졸화) 권순형(49응미) 권영걸(69응미) 권영우(46회화)
권용래(82회화) 권중환(87조소) 권혜정(11동양) 권훈철(66회화) 갈해연(13서양) 길호관(74응미)
김경배(72응미) 김경선(81회화) 김경인(60회화) 김광숙(69회화) 김교만(50응미) 김교홍(47조소)
김구한(69조소) 김금출(55회화) 김길홍(61응미) 김남용(90서양) 김대륜(53회화) 김덕겸(58응미)
김동선(75회화) 김미라(석11서) 김미혜(78회화) 김민경(12동양) 김민선(00디자) 김범렬(67조소)
김병중(74회화) 김복순(64조소) 김봉경(02동양) 김봉구(58조소) 김상경(87서양) 김서봉(49회화)
김선경(85서양) 김선영(86동양) 김성연(68조소) 김성연(69응미) 김성희(82회화) 김세중(46조소)
김소선(63조소) 김소정(12동양) 김순애(78응미) 김승희(65응미) 김시용(56응미) 김신현(58회화)
김아영(70회화) 김여경(14조소) 김여옥(63회화) 김영중(48조소) 김영진(57회화) 김영학(48조소)
김영호(90조소) 김옥주(71응미) 김용식(75회화) 김우한(75회화) 김원세(58회화) 김유선(77조소)
김유주(80응미) 김은정(81회화) 김의웅(61조소) 김익성(81조소) 김익수(58회화) 김인경(74응미)
김인선(74회화) 김일영(74조소) 김재임(56회화) 김정숙(57회화) 김정아(90서양) 김정현(58회화)
김제민(98서양) 김종삼(96서양) 김종선(74회화) 김지명(69회화) 김지열(56회화) 김지희(59응미)
김진경(82응미) 김진평(69응미) 김창렬(48회화) 김창세(74조소) 김창수(82응미) 김창희(56조소)
김천일(71회화) 김철효(63회화) 김춘옥(64회화) 김치환(54조소) 김태곤(86조소) 김태훈(13조소)
김현용(54응미) 김현지(88동양) 김형주(66회화) 김형진(80회화) 김혜림(81회화) 김혜원(71응미)
김호걸(53회화) 김호룡(77조소) 김호준(92서양) 김홍규(83공예) 김화련(60조소) 김황록(80조소)
김효숙(63조소) 김효제(82조소) 김효진(석07공예) 김훈(75응미) 김희영(75회화) 김희자(66회화)
나성숙(71응미) 나오미(86동양) 나형민(91동양) 남궁훈(50회화) 남영철(59회화) 남 철(57조소)
남혜숙(62회화) 노명자(63응미) 노부자(61조소) 노숙자(62회화) 노승희(82회화) 도혜선(88조소)
도홍록(75조소) 류승환(81회화) 류 훈(73조소) 문기선(55조소) 문길자(60회화) 문미애(56회화)
문종옥(60회화) 문 주(78조소) 문학진(46회화) 문혜정(74회화) 민경갑(53회화) 민병목(55회화)
민복기(95공예) 민수정(82회화) 민정기(68회화) 민철홍(54응미) 박경희(75응미) 박관욱(69회화)
박광철(57미학) 박광호(52회화) 박근자(51회화) 박남재(50조소) 박노수(46회화) 박다애(73응미)
박덕실(81회화) 박도양(57회화) 박동진(82회화) 박미화(75응미) 박병영(57조소) 박병욱(58조소)
박석환(53회화) 박성권(78조소) 박세원(46회화) 박소영(73회화) 박소영(92동양) 박소현(80회화)
박수용(90공예) 박숙희(58응미) 박연도(56회화) 박영국(70졸화) 박영근(84서양) 박영성(48회화)
박영신(77응미) 박요원(56회화) 박윤희(63회화) 박일훈(81회화) 박재곤(56회화) 박재호(59회화)
박정원(62응미) 박조향(63응미) 박종대(62조소) 박진하(00동양) 박철준(47조소) 박충흠(65조소)
박향숙(58응미) 박현숙(75회화) 박현주(87서양) 박현호(11서양) 박혜령(74회화) 박혜영(76응미)
박홍도(58조소) 박희선(76조소) 박희자(64회화) 배성환(78회화) 배수자(63회화) 배창숙(74응미)
배형경(74조소) 백문기(46조소) 백태호(46응미) 백현욱(58조소) 변명희(85동양) 변명혜(78회화)
변희준(63조소) 봉상균(55응미) 부현일(58회화) 서경덕(72응미) 서도식(74응미) 서동수(86서양)
서동희(66응미) 서명덕(71응미) 서세욱(46회화) 서용선(75회화) 서재영(71회화) 서효숙(81회화)
선우향(91서양) 설화영(74응미) 성기완(58회화) 성기점(58회화) 소병호(51회화) 손문자(62응미)
손우아(08동양) 손찬성(57회화) 손희옥(68회화) 송근영(86동양) 송계상(58조소) 송민호(00공예)
송부환(58회화) 송수연(04동양) 송영수(50조소) 송인욱(82회화) 송인호(82응미) 송지연(85동양)
신경호(68회화) 신경훈(74응미) 신경희(84서양) 신동우(55응미) 신민경(석15동) 신상재(58응미)
신석필(58조소) 신수진(91서양) 신영상(54회화) 신영현(48회화) 신하순(83동양) 신현경(74회화)
심봉섭(51조소) 심정수(60조소) 심철웅(78회화) 심현희(76회화) 안기순(78회화) 안동국(56응미)
안동숙(48회화) 안말환(76회화) 안상철(50회화) 안성경(68응미) 안성규(86서양) 안수경(85공예)
안영나(80회화) 안영목(46회화) 안영일(54회화) 안재후(52회화) 안종문(60응미) 안필연(80조소)

양승춘(59응미) 양승희(73회화) 양정자(55회화) 양창보(56회화) 양호일(58응미) 염미란(80공예)
염은경(74조소) 염인택(54응미) 오귀원(75조소) 오병권(66조소) 오병욱(76회화) 오숙례(74회화)
오영재(83서양) 오용길(65회화) 오 윤(65조소) 오의석(74조소) 오종욱(55조소) 우상호(89서양)
우재국(63졸화) 원은경(76회화) 위한림(88산디) 유관호(55응미) 유금란(75응미) 유길향(79회화)
유당주(63조소) 유리지(64응미) 유병수(58회화) 유병익(82회화) 유부강(61회화) 유영준(58조소)
유영필(46회화) 유인수(66회화) 유한원(46조소) 유한태(67응미) 유향숙(75조소) 유형길(58회화)
유 황(58회화) 윤강익(93서양) 윤건철(61회화) 윤동천(81회화) 윤선자(61회화) 윤연선(91서양)
윤영화(84서양) 윤옥진(64조소) 윤주원(95서양) 윤태영(84서양) 윤형근(47회화) 윤형자(61회화)
이강자(67조소) 이경자(57회화) 이경희(67응미) 이계원(84서양) 이광수(88동양) 이광택(80회화)
이광호(87서양) 이권민(08동양) 이규선(57회화) 이기원(46회화) 이기철(83조소) 이기훈(46응미)
이길원(69회화) 이남규(53회화) 이동진(58회화) 이동찬(57응미) 이만나(89서양) 이만익(57회화)
이미화(74회화) 이민주(76회화) 이병석(58회화) 이병학(62회화) 이봉숙(63응미) 이부연(71응미)
이삼철(58회화) 이상갑(66조소) 이상국(67회화) 이상은(86서양) 이석우(46회화) 이선원(75회화)
이성도(74조소) 이순영(84동양) 이애자(73응미) 이열모(53회화) 이영룡(58회화) 이영석(72회화)
이영주(83조소) 이옥수(74응미) 이윤규(82회화) 이윤덕(77조소) 이용환(48회화) 이우범(63회화)
이우성(52응미) 이윤희(67회화) 이은경(77회화) 이은숙(81회화) 이은실(82응미) 이은심(76응미)
이은정(79회화) 이인경(77회화) 이인수(73회화) 이일영(46회화) 이재한(58회화) 이정림(73회화)
이정수(58회화) 이정숙(65응미) 이정연(71회화) 이정연(12동양) 이정은(90동양) 이정혜(63응미)
이종복(62응미) 이종수(54응미) 이종숙(82회화) 이종학(47회화) 이주영(61회화) 이주원(87동양)
이지선(82회화) 이지희(53회화) 이지희(80회화) 이진경(07서양) 이진민(83서양) 이창림(69조소)
이춘기(56회화) 이춘만(58조소) 이춘복(92공예) 이필두(82회화) 이 혁(90조소) 이혜경(84동양)
이혜민(74응미) 이홍전(82회화) 이환범(73회화) 임범택(57응미) 임상묵(53응미) 임상빈(95서양)
임상진(54회화) 임수진(82회화) 임순자(69조소) 임영선(79조소) 임영호(85조소) 임철순(74회화)
장규돈(05서양) 장기은(46조소) 장동호(81조소) 장선백(53회화) 장수홍(69응미) 장승원(81회화)
장양희(94서양) 장연택(60조소) 장운상(46회화) 장원경(73응미) 장윤우(56응미) 장주연(12동양)
장지원(72응미) 장혜용(69회화) 전경옥(75조소) 전미정(82조소) 전민숙(74조소) 전상범(48조소)
전성규(81회화) 전성우(53조소) 전수연(06동양) 전영화(49회화) 전향섭(79조소) 전효순(75응미)
정경진(08동양) 정규리(90동양) 정기용(64응미) 정두희(97동양) 정선화(56응미) 정세진(91공예)
정승섭(61회화) 정심미(63조소) 정안수(82회화) 정연택(74응미) 정옥란(62응미) 정일영(95서양)
정재철(83조소) 정정자(60회화) 정종해(67회화) 정진국(48회화) 정창섭(46회화) 정채희(77회화)
정치환(60회화) 정택영(56회화) 정현도(71조소) 조규철(84회화) 조기풍(57응미) 조동제(80조소)
조명식(82회화) 조새미(92공예) 조성애(64응미) 조수호(47회화) 조여주(77회화) 조영제(54응미)
조은영(74회화) 조용숙(63회화) 조윤희(98서양) 조 윤(59조소) 조은경(61회화) 조인호(96동양)
조재연(77조소) 조재형(96공예) 조창환(86조소) 조혜정(91서양) 주민숙(64회화) 지원진(84동양)
진송자(64조소) 차동하(85동양) 차명희(66회화) 차임선(70응미) 채정은(81공예) 채현교(90서양)
채혜선(82응미) 최경주(85서양) 최경한(52회화) 최국강(62응미) 최국병(58조소) 최만린(54조소)
최미영(70응미) 최병건(87공예) 최병기(71회화) 최병민(69조소) 최석화(58조소) 최순규(85공예)
최아영(67응미) 최용건(69회화) 최옥경(59회화) 최유리(06서양) 최윤정(82회화) 최은혜(02동양)
최인수(66조소) 최정용(63회화) 최종걸(56졸화) 최진희(83서양) 최충웅(57조소) 최현주(12동양)
최혜인(90동양) 최홍순(63회화) 최희권(58응미) 표승현(50회화) 하동철(61회화) 하수경(70회화)
하인두(50회화) 한경우(98조소) 한계륜(89서양) 한기욱(62조소) 한동윤(82조소) 한성원(92서양)
한소희(46회화) 한영옥(58회화) 한용진(56조소) 한우식(46회화) 한운성(65회화) 한정미(97동양)
한정수(77회화) 한지현(01동양) 한풍렬(66회화) 한현정(08동양) 한혜경(75회화) 함미애(81회화)
함미혜(04동양) 허민재(63응미) 허 산(99조소) 허 진(81회화) 현숙자(56회화) 현승의(11동양)
현철주(74회화) 홍성문(50조소) 홍순무(54회화) 홍정희(60회화) 홍정희(65회화) 홍혜숙(69응미)
황교영(58조소) 황민재(63응미) 황영희(58회화) 황인혜(65회화) 황창배(66회화) 황하진(57조소)
황현수(74조소) 황현숙(66응미)

모교소식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특별강연시리즈 #1

영상의 발견:
모노하 이후 1970년대 일본미술

박혜연
박혜연은 예일대학 역사학과에서 석사, 컬럼비아대학에서 동아시아학과 미술사학 석사를 마치고 2021년 뉴욕시립대학(CUNY) 미술사학과에서 '20세기 후반 한국, 미국, 일본의 비디오 아트의 형성에 대한 연구(The Making of Transpacific Video Art, 1966-1988)'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모교 서양화과 강사로 재직 중이다.

3/27 토요일 11:00~12:30
Zoom 화상 특강
참가 ID: 868 0261 6464



서양화과 특별강연시리즈

모교 서양화과에서 현대미술에 관한 특별강연 시리즈를 기획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3월27일 오전11시부터 오후12시30분까지 박혜연 강사의 “영상의 발견: 모노하 이후 1970년대 일본미술” Zoom 화상특강이 진행됐다. 박혜연 강사는 예일대학 역사학과에서 학사, 컬럼비아대학에서 동아시아학과 미술사학 석사를 마치고 2021년 뉴욕시립대학(CUNY) 미술사학과에서 '20세기 후반 한국, 미국, 일본의 비디오 아트의 형성에 대한 연구(The Making of Transpacific Video Art, 1966-1988)'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모교 서양화과 강사로 재직 중이다.

정년퇴임 서도식(74응미) 교수/ 오귀원(75조소) 교수



지난 2월 2명의 모교 교수가 정년퇴임을 맞았다. ◀서도식 동문은 모교 졸업 후 금속공예가로서 차가운 금속의 표면에 따뜻한 옷칠을 입히거나 금속을 산화시키는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금속에 새로운 질감과 색깔을 입혀왔다.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서동문은 동아공예대전 동아공예상, 대한민국공예대전 특선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 문화재전문위원,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이사,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오귀원 동문은 모교에서 조소전공 학사, 석사 졸업 후 미국 Pratt Institute에서 석사와 NYU에서 미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각과 설치, 개념 미술의 경계를 오가는 작품세계를 펼치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조각가연구세미나', '현대조각담론' 등 강의를 통해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평을 이끌어내는 등 열정적인 지도를 펼쳐 교육상을 받았다. 모교 조소과 학과장과 한국여류조각가회장을 역임했다.

서울대소식



복수전공-부전공 선택 폭 넓힐것

서울대(총장 오세정)가 2031년까지 학과 중심 교육과정을 통합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다(多)전공'에 제한을 두는 제도도 없앨 방침이다. 오세정 총장(위사진)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평생 직업을 서너 번은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며 “학생들이 이 같은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Inno-Edu 2031'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 남짓한 학과의 교육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다. 2031년이면 모든 학과의 커리큘럼이 전면 리뉴얼된다. '학생설계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의 선택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사라져 선택 폭이 크게 넓어진다.

SNU홀딩스설립, 수익창출

올해로 법인화 10년을 맞은 서울대가 지주회사인 'SNU홀딩스' 법인 설립을 마치고 자체 수익사업에 본격 나선다. 첫 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원창업 등 벤처투자와 글로벌 교육사업에 적극 뛰어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월19일 열린 서울대 제1차 이사회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NU홀딩스 법인설립 건을 통과시킨 뒤 교육부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설립을 마쳤다. 초기 예산은 40여억원이며, 앞으로 자문단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의 자율화와 다양한 수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SNU홀딩스를 설립하고 최고경영자(CEO) 등 인적구성을 마쳤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창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SNU벤처스라는 투자 전문 자회사도 함께 설립했다”고 밝혔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올해로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외 경쟁 대학에 비해 재정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낮다. 정부 조직에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음에도 여전히 수익사업으로 얻는 수입은 전체 수입 중 13~1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역시 매년 동결되고 있어 대부분 재원을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창업에 집중해 수익을 내는 서울대 기술지주회사가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자체 인력과 자본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새로운 지주회사 설립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6월 작성된 '서울대 법인재정립위원회 제언사항' 보고서를 보면 서울대는 SNU홀딩스를 세우고 평창, 시흥, 관악, 광고 등 멀티캠퍼스 인근 용지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을 통한 운영하도록 계획했다. 또 수입 대체 경비 사업, 공개강좌 사업을 SNU홀딩스로 이전해 사업 잉여금을 이월하거나, 타회계전입금 형태로 법인회계에 전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대의 인적자원과 브랜드를 활용한 글로벌 교육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기준 출연금·등록금·수익 사업 비중이 60:26:14이지만 앞으로 10년 내에 이 비율을 50:25:25로 조정하려는 계획이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법인화 10년을 점검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총장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해 이번 봄에 장기발전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3기인생대학 12기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서는 서울대 교수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노년기 삶에 대하여 배우고 준비하는 제3기인생대학(12기)을 개설, 올해 5월18일부터 12월7일까지 총 22주 과정을 서울대 체육문화연구동에서 진행한다. 은퇴에 대한 준비가 은퇴 이후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 본 과정은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40대 이후의 일반 시민들이 대상이다. 제3기인생은 퇴직 이후 또는 40대 이후에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를 의미한다. 2009년부터 시작한 제3기인생대학은 2개 학기, 총 1년 기간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년기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기생들과의 유대를 쌓게 된다. 대표적인 과정으로는 건강의 활력을 되찾는 운동 및 건강 관련 프로그램, 상속과 증여와 같은 자산관리 필수 지식 그리고 성악과 역사와 같은 문화 교양수업이다. 현재 총 662명이 수료해 졸업 이후에도 합창단, 댄스스포츠회, 산악회, 봉사활동회, 골프동호회, 문화유적답사회 등을 통해 수강생들과의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대총동창회소식



회장연임 등 회칙개정안 확정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이희범)는 지난 3월10일 회칙개정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회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시대 변화에 맞게 본회 회칙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총동창회는 지난해 말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 우창록, 이하 회칙개정위)를 구성하고 총 3차례 전체회의와 5번의 소위원회를 통해 회칙개정안을 마련했다.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 우창록(70법학/법무법인

울촌 명예회장) 위원장 등 위원 8명이 참여해 개정안을 최종 검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장 임기 관련 조항 수정 △회장 선출 관련 조항 명시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 특수 상황 대비 조항 신설 △회칙 내 용어 및 표현 정비 등이다. 개정안은 회장의 임기를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회장 연임은 개정 회칙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회장부터 적용된다. 회장 임기 시작일은 4월1일로 명시했다. 회장은 임기 동안 재단법인 관악회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악회 이사장에 취임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회장추대위원회 구성 인원내 대해 회칙개정위는 회장 지명 부회장 12인 이내, 당연직 부회장들이 상호협의해 선출하는 당연직 부회장 12인 이내, 모교 총장 지명 3인 이내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 '약간 명'으로 규정했던 부회장 숫자는 각 대학 또는 대학원 동창회장이 맡는 당연직 부회장을 포함해 300명 이내라고 명시했다. 또 기존의 '상임이사회' 명칭은 개정안에서 '상임위원회'로 수정됐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유행 등으로 단기간 내에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로 총회 의결을 대신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동문 전·현직 전임 교원에게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회칙개정안은 상임이사회 보고를 거쳐 6월11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상정된다. 개정안 전문과 구 회칙 전문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며, 13만 동문에게 이메일로도 발송했다. 회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25일까지 이메일과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입학·졸업 70·60·50·40·30·20주년 기념배지증정

기념배지 신청방법

- 대상 : 1951/1961/1971/1981/1991/2001년도 입학/졸업 동문
- 신청기한 : 2021년 5월10일(월)까지
- 배 송 : 2021년 5월말부터 순차 발송
- 신청방법: 양식에 맞춰 팩스/구글폼/문자로 신청

- 팩스 : 02-703-0755

- 구글폼 : <https://forms.gle/vUCEWAiaSrhGN6sSA>

- 문자 : 1877-2039(전화수신불가)-답신1~2주소요

● 신청양식 : ①제목-기념배지 신청 ②성명 ③학과

④○년 입학 또는 졸업 ⑤배송주소 ⑥연락처

※ 기념배지는 동문 1인당 1개로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중복 신청 불가

※ 단체 및 대리 신청, 해외배송 불가

5월 동문등산대회

-일시 : 5월1일(토) 오전10시

-집합장소 : 청계산 옛골버스종점(양재역 10번출구 또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2번출구에서 4432버스 탑승)

-등산코스 : 옛골버스종점-이수봉-헬리콥터장-옛골버스종점(3시간30분 소요)

-중식 : 옛골토성(02-578-0808)

-참가인원 : 100명 미만(선착순)

-참가비 : 2만원(중식 및 기념품 제공)

*식사에약 등으로 4월22일 이후 참가비 환불 불가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제23회 관악대상시상식

-일시 : 2021년 6월11일(금) 오후5시

-장소 : 코엑스3층 오디토리움(서울 삼성동 소재)

-행사내용 : 정기총회, 유공동문&관악대상 시상(만찬 없음)

-참석범위 : 사전 예약하신 동문

-참가신청 : 5월28일(금)까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까지

□ 참가신청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c.kr로 접수

□ 참가비 : 신한은행 140-013-055887(서울대총동창회)

입금시 성함과 입학연도 병기 바람

□ 문의 : 02-702-2233

4월 수요특강

-일시 : 4월28일(수) 오전7시30분

-장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마포구 5호선 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 정병석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前노동부 차관

-주제 : 신뢰와 법치사회 구현

-참가인원 : 45명 이내(선착순)

제2회 국토문화기행

-일시 : 4월29일(목) 오전9시~오후6시(예정)

-답사지역 : 임진강의 역사지리(경기도 파주)

-집결지 :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코스 : 오두산통일전망대-반구정-화석정-장파적벽-경순왕릉-고랑포구-호로고루산성-두지포(중식)-송의전-당포성-군남대-종합운동장역

-안내&해설 : 이민부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참석인원 : 20명 이내

-참가비 : 5만원



공지사항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감사 ·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납부자(2021.3.1.-3.31)-가나다순

■ 연회비(회원) ●민복기(95공예)

회비를 납부하시면 본회 홈페이지(snuart.or.kr) 아카이브에 회원님의 약력과 창작물 및 사업관련 이미지를 게재해드립니다. 회비납부 후 본회 메일로 이미지3점/캡션/약력/경력/전시이력/수상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올려드립니다. 기존에 업로드 되어있는 회원님들은 수정·보완해드립니다.

아카이브 게재신청
메일주소 : snuarta@naver.com
제출자료 : 이름(학번/과), 약력, 창작물 또는 사업관련 이미지, 캡션문의 : 02-872-5065

인스타그램 계정변경안내

본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바뀌었습니다.
@snuartassociation → @snuartalumni
기존계정은 개인계정으로 바뀌었으니 동문들께서는 새로운 공식계정인 @snuartalumni를 팔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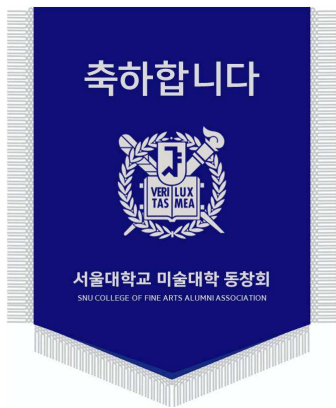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 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매달 25일 이전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사업체 소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하여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의 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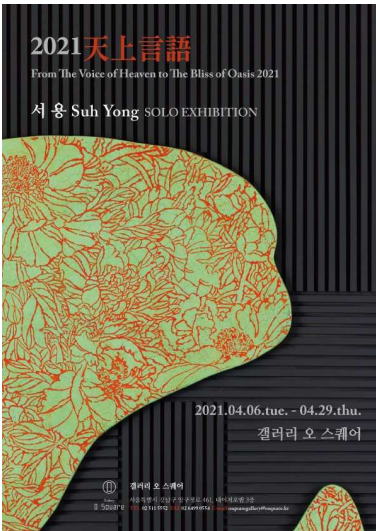
축하기·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 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872-8065)

동창회 SNS 가입안내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 밴드 ·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올려 동문들에게 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 : 김홍도(98동양)



MEUM.ME

온라인 메타버스
커스터마이징 플랫폼
Online Metaverse
Customizing Platform

주식회사음(대표:김휘재, 동양화12)이 온라인 메타버스 커스터마이징 플랫폼 '음'을 3월 22일 공개했다.

음은 누구나 조건 없이 웹에서 2D·3D·Video 창작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용자와 창작자가 메타버스에서 어울리는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한다. 교육과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며 미학적/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기대한다.

https://meum.me
T. 070 7537 0922
E. meum@meum.me

한국화진흥회 이사장취임 김춘옥(64회화)



김춘옥동문이 지난 3월8일 사단법인 한국화진흥회의 초대이사장에 선임됐다. 김동문은 1968년 모교 회화와 학사 졸업 후 1981년 세종대학교 대학원 미술과 동양화전공 석사를 취득했다. 육관 문화훈장, 동아미술상을 수상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미술은행 작품매입심의위원,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위원, 재) 세종문화회관 이사, 서울시미술장식품 심의위원, 한국미술협회 수석부이사장,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 마을미술프로

젝트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재)아름다운맵 이사장, 한국화여성작가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화진흥회 초대이사장, 한국화여성작가회 고문, 한국미술협회 상임자문위원이다. 한편 이번에 법인화한 한국화진흥회는 2017년 한국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당시 대한민국예술훈 회장이던 고(故) 유산 민경갑(53회화) 동문을 주축으로 대한민국의 현대 한국화를 주도하는 중심 작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학연과 지연을 넘어 한국화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되기를 기원하며 매년 한국화의 날 행사를 열고, 한국화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세계 속에 한국화의 위상을 굳건히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전시와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설경구·황정민을 키워낸 학전30주년 김민기(69회화)



설경구, 김윤석, 황정민, 장현성, 조승우를 키워낸 김민기 동문의 극단 학전이 지난 3월15일 30주년을 맞았다. 극단 학전(學田)은 한자로 '배울 학(學)'에 '밭 전(田)' 자를 쓴다. 서울대 문리대가 대학로에 있던 시절 그곳의 구내식당 이름에서 따왔다. 1990년대부터 '소극장 문화'를 대표해온 곳이다. 대중음악 콘서트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 뮤지컬을 비롯한 정극 중심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전통예술, 클래식, 현대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수용했다. 특히 완성도를 갖춘 어린이·청소년극 '최후의 보루'로 통하는 곳이다. 세계적인 재즈보컬 나윤선도 '지하철 1호선'으로 데뷔했다. 윤도현은 1995년 극단 학전 '개똥이'로 뮤지컬에 처음 출연했으며, 가수 김광석은 세상을 떠나기 전 1000회 공연을 학전에서 했다. 또 학전은 '학전 문예 강좌'를 통해 성인 대상 강의도 꾸준히 열었다. 유홍준, 이태호, 윤용이, 유재원 등 인문학 전



문가교수들이 이곳에서 강의를 했다. 김동문은 1951년 전북 익산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경기중고 시절 미술반 활동을 했고, 1969년 모교 회화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대학 수업이 잘 맞지 않았던 그는 낙제를 하게 된다. 이후 1970년 김동문은 그의 대표곡 '아침 이슬'을 발표했다. 초창기엔 건전가요로 지정되며 널리 장려됐으나 불과 2년 뒤, 1972년 '10월 유신'이 있고 불온하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다. 1년 전 '건전가요 서울시문화상'을 받았던 곡이었다. 1971년 내놓은 독집 음반은 전량 압수됐다. 방송금지는 물론 연행의 길을 걸었다. 김동문이 이와 같은 각종 어려움을 뚫고 연 학전은 공연계뿐만 아니라 문화계 숨통이 됐으며 문화예술계에 대한 공을 인정 받아 작년 호암재단이 수여하는 '제30회 호암상 수상자' 예술상을 받았다.

'빛소리 몽환도' 개정판출간 주수자(72조소)



국내 베스트셀러 기록 후 영국에서 번역 출간돼 화제를 모은 주수자 동문의 저서 '빛소리 몽환도' 개정판이 출간됐다.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빛소리 몽환도'는 지난해 12월, 영국 유수의 출판기업 Page Addie Press에서 번역돼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출간됐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출간과 함께 영국 최대의 체인서점인 'Waterstones'를 비롯한 주요 서점에서 판매되며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짧은 분량과 간결한 문체가 특징인 이책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흥미를 유발한다. 연극과 웹툰의 형태로도 구성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특히 소설과 동명의 공연 '빛소리 몽환도'는 첫 상연 이후 관객들의 호평 일색으로 올해 다시 단장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주동문은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옥탑방'은 책 속이기도 하며 인간 그리고 우주라는 동격의 개념을 둔 세계다."라고 말한다. 모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미국 콜게이트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 23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채로운 경험을 해왔다. 주동문은 "우리의 의식과 언어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실에 그치지 않듯, 옥탑방을 단순히 협소한 공간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는 통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동문은 2001년 '한국소설'로 등단했으며 소설집 '버펄로 폭설', '붉은 의자', '안개동산', '빛소리몽환도' 등, 시집으로는 '나비의 등에 업혀', 희곡 '복제인간 1001', 영어 저서 'Night Picture of Rain Sound' 등이 있다.

서울대 초대 옴부즈퍼슨 문주(79조소)



모교 교수 문주 동문이 서울대학교 초대 옴부즈퍼슨으로 위촉됐다. 서울대는 구성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학교의 제도적·물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1일부터 '옴부즈퍼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옴부즈퍼슨은 국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옴부즈만 제도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인권센터가 인권 문제를 상담·해결 해주는 기능을 하면서 고충 민원도 처리해왔는데, 고충 민원은 개인 간 갈등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와 물적시설, 문화적 환경 등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고충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기구로 옴부즈퍼슨을 신설했다. 초대 옴부즈퍼슨으로는 문동문외에

서울대 이장규 공과대학 명예교수, 이준구 사회과학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홀로 해결하기 어렵고 어디에 토로하기 조심스러운 어떤 갈등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구실 등 집단생활 중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따른 고충, 연구윤리 위반 문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인권 친화적인 캠퍼스 문화를 만들고자 함이다. 문동문은 모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공과대학 대학원 커뮤니케이션아트 전공을 졸업하고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1년 중앙미술대전 조각부문 특선, 1995년 김세중청년조각상, 1997년 토탈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 때 백남준 작가가 기획한 '인포아트(Info Art)' 등 굵직한 전시에 참여했고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로 '하나 된 우리'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지난해까지 모교 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모교 조소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고화집 출간 신경희(84서양)



신경희(1964-2017) 동문이 남긴 25년간의 작품 세계를 집약한 유고 화집이 발간됐다. 1990년대 인기 작가였던 신동문은 40대에 병마로 작품활동을 중단한 이후 53세에 세상을 떠났다. 사후에 학고재갤러리(2019)와 조은숙갤러리(2020)에서 두 차례 유작전이 열려 그 예술세계가 조명된바 있다. 전시기간 중에는 추모행사가 열려 대성황을 이뤘다. 신동문이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2년만의 일이다. 유작전 후 400점 이상의 작품을 남긴 신동문의 예술세계를 집약하는 화집 발간이 추진됐다. 최은주(76회화/대구미술관장), 심상용(81회화/모교교수), 정영목(모교명예교수), 오병욱(76회화/화가), 김이수(화가) 등이 주축이 됐고, 김복기(80회화/아

트인컬처대표, 경기대교수)가 총괄 기획을 맡았다. 한편 유족 측은 이 화집의 대부분을 미술관,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 연구자에게 기증하겠다고 했다.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신동문은 필라델피아 템플대 타일러스쿨 오브아트에서 판화전공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99년 템플대가 선정하는 '가장 성공한 졸업생'에 올랐다. 재학시절 동아미술제와 한국현대판화공모전에서 특선을 수상하는 등 판화로 두각을 냈던 그는 1989년 제3미술관에서 판화작품으로 첫 개인전을 가진 이후 판화기법을 활용하면서도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어 동시대의 조형언어를 폭넓게 수용하는 열린 형식의 작품을 선보였다. 1994년 화랑미술제에 참가해 한일간지의 '차세대 작가 베스트 10'에 선정됐으며, 같은 해 공산미술제 대상, 1997년 석남미술상을 수상했다. 모교와 템플대, 동국대, 국민대, 성신여대, 계원예술대, 인하대에 출강하다 2005년부터 작품에 전념했다. 신동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이화여자대박물관, 한술문화재단, 성곡미술문화재단, 한미은행, 삼성중공업, 박영사 등에 소장되어있다.

멕시코에 세운 그리팅맨 유영호(84조소)



유영호 동문이 지난 3월17일 우루과이, 파나마, 에콰도르, 브라질, 미국 등에 이어 멕시코 메리다 '대한민국'에 조각상 '그리팅맨'을 설치했다. 해외 7번째 그리팅맨이 설치된 메리다는 1905년 멕시코 한인 1세대 이민자 1천여명이 온 곳이다. 지난 2012년 유동문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1호 그리팅맨을 설치할 때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 반응이 80%였으나 논란 속에 등장한 조각상은 곧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이제 몬테비데오 여행책자에 등장하는 지역 명물이 됐다. 모교 졸업 후 독일서 유학한 유동문은 전시회에서 만난 네덜란드 유명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보며 인사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을 듣고 지구촌 그리팅맨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됐으며, "인사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 인종, 종교 간 모든 관계의 시작이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을 낮추는 한국식 인사의 의미를 곳곳에 전하고 싶었다"고 한다. 국내에도 양구, 연천, 제주 등에서 그리팅맨을 볼 수 있으며, 연내 인도네시아와 가봉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작품 제작과 운송비 등을 자비로 충당한 그는 사람들이 그리팅맨 프로젝트를 보며 많은 돈을 벌었겠다고 오해하다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닌 걸 알게 되면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고 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했으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한다. 유동문은 아르헨티나의 땅끝 우수아이아, 지브롤터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스페인 타리파와 튀니지 탕헤르 등에도 그리팅맨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세우고 싶은 곳은 북한으로, 연천의 그리팅맨과 마주 볼 작품의 설치를 다양한 경로로 제안했다고 한다.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장 취임 신창환(88산디)



신창환 동문이 지난 3월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뽀롱뽀롱 뽀로로'와 '꼬마버스 타요', '그라미의 서커스쇼' 등 다수의 성공한 애니메이션을 기획&제작 해왔던 신동문은 "그 동안의 애니메이션 기획 및 제작 경험으로 애니메이션제작자들의 목말라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애니메이션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6년 동안 콘텐츠분쟁조정 위원으로 활동한 바 국내 애니메이션제작자들과의 상호협력 및 유대강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전달해 주는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동문은 1995년 모교

졸업 후 금강기획, 아이코닉스에 근무했고 지난 2008년 애니메이션 기획&제작 전문회사 스튜디오게일을 설립, 올해 CEO로서 14년 차를 맞는다. 최근 자체 지적재산권(IP)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태리 카툰스온더베이 대상 수상작인 '그라미의 서커스쇼'를 필두로 '피피루 안전특공대', '롱롱죽겠지?', '티시태시' 등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한 애니메이션IP를 매년 한 작품씩 선보이고 있다. 이중 2019년도부터 EBS에서 방송중인 애니메이션 '티시태시'는 최근 한국애니메이션 창작역사상 최초로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에서 방영권 구입의사를 밝혀 K애니메이션의 해외진출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신동문은 지난 2019대한민국콘텐츠대상 해외진출유공 국무총리표창, 2020대한민국콘텐츠대상 애니메이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유니티엔진으로 제작중인 '토몬카', 방송인 샘 해밍턴의 자녀 윌리엄과 벤틀리 형제의 캐릭터브랜드인 "윌벤저스"의 캐릭터 개발과 극장판 3D애니메이션 등 작품제작에 힘을 쏟고 있다.

예술가의 동반자, 패턴을 만나다 최혜원(89동양)



최혜원 동문이 지난 4월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 김포시 장기도서관에서 총 4회에 걸쳐 '희희락락 인문학-예술가의 동반자, 패턴을 만나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기도서관 '희희락락 인문학-예술가의 동반자, 패턴을 만나다' 프로그램은 기존에 평면적 미술강의에서 벗어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술작품과 예술가, 그리고 숨은 조력자들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으로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좌로 진행된다. 주제는 1주차 세기의 스폰서 르네상스와 메디치, 2주차 20세기의 메디치,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3주차 20세기 현대 미술계의 대표적 후원자, 폐기 구겐하임, 4주차

백만장자의 비뚤어진 그림 사랑으로 구성됐다. 이번 강연을 진행하는 최동문은 모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세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고 여러 단체전에서 활동했으며 'MBC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선일보 '맛있는 논술' 지면에 '명화로 보는 논술'을 연재했으며 현재 아트컨설팅 회사인 블루로터스의 대표로, 보다 나은 미술문화를 기획하고 실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가게'의 미술품 경매 디렉터 일과 대학 강의를 병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미술사와 동양화론, 동양회화를 가르친다. 현재 건국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겸임교수이며 '미술쟁점-그림으로 비춰보는 우리시대'라는 책으로 독자들과 소통해 왔다. 강좌의 접수는 소영만 김포시립도서관장은 "훌륭한 예술작품과 예술가, 그리고 그들의 후원자와의 관계를 만나 보고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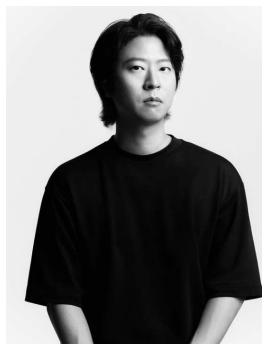
프리미엄 화훼서비스 전우석(94동양)



전우석 동문이 운영하는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꽃과 식물의 친구 아도니스는 꽃과 식물을 통한 심리적인 치유와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브랜드다. 숲을 좋아해 동양란과 식물들로 집을 장식하신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전동문은 퇴직 후 망설임 없이 플로리스트로서 사업을 시작했다. 상호인 아도니스는 복과 행운을 전하는 노란 꽃으로, 복수초라고도 불린다. 아도니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복과 행운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에서 시작한 플라워배달서비스가 어느덧 13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3월12일 프라임헤럴드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공장식 제작의 간편함을 지양하고 개인 플로럴디자이너의 디테일한 손길이 담긴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도니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운영 철학이다"며, 아도니스는 단순히 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품위, 감동과 힐링을 담는 태도로 제작에 임한다고 자부했다. 한편 아도니스에서 진행하는 가드닝, 플라워 레슨은 개개인이 가진 미감과 꽃과 식물로부터 얻는 감동의 차이를 고려해 수강생마다 조금씩 다른 속도와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는 아도니스의 교육목표이자 철학인 개인의 시각을 스킬과 접목해 자신만의 디자인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아도니스의 철학을 통해 꽃과 식물에는 아름다움 뿐 아니라 마음과 감성에 힐링을 주는 잠재력이 있다는 전동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다. 전동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인 '플로랄테라피'에서도 전동문이 꽃과 식물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이 드러난다. 이어 전동문은 한국 사회의 노령화에 따른 경제인구와 학령인구 감소, 비혼자의 증가 등의 변화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전혀 성격이 다른 타 업종과의 콜라보로 '힐링'을 목표로 실버층을 겨냥한 사업이라고 살짝 언급했다.

아카데미상 단편 애니메이션 후보에 오수형(02서양)



감독 오수형(에릭오) 동문이 제작에 참여한 '오페라'가 지난 3월 북미 최대 콘텐츠 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SXSW)에서 관객상을 받았다. 또한 오는 4월26일 열리는 제93회 미국 아카데미상 단편애니메이션 부문에 아시아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후보로 올랐다.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카데미상 후보로 지명되면서 오동문과 작품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다. '오페라'는 벽면이나 구조물에 투사되는 설치 미디어아트 전시를 위해 기획된 작품으로, 지난해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애니메이션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한국의 비스츠엔네이티브스가 제작한 8분 44초 분량

의 '오페라'는 피라미드의 24개 칸 안에 결혼과 출산, 경제활동 같은 일상부터 테러, 인종차별, 재해, 전쟁 등 반복된 인류의 비극도 담은 작품이다. 지난해 유수의 애니메이션 영화제 등에서 공식 상영돼 호평 받았으며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해외 영화 관계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 시사회에서 공개돼 찬사를 얻어내기도 했다. 모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한 그는 아버지인 오준호 카이스트 교수를 따라 미국으로 가 UCLA를 거쳐 2010년부터 6년여 동안 픽사스튜디오에서 일했다. 세계적인 흥행작 '도리를 찾아서' '인사이드 아웃' 등 작품에 애니메이터로 참여했다. '도리를 찾아서'의 문어 행크 등이 오동문이 만들어낸 캐릭터이다. 그는 이미 2015년에도 '땀 키퍼'로 아카데미상 단편애니메이션에 후보로 오르며 재능을 인정받았다. 이어 한국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애니메이션축제인 안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TV시리즈부문 최고상인 크리스탈을 수상했다.

작가가 만든 전시공간 실린더 노두용(09조소)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실린더(CYLINDER)'는 대안미술과 상업미술의 중간 매개 역할을 자처하며 국내작가는 해외에, 해외작가는 국내에 소개하는 성격의 플랫폼이다. 디렉터 노두용 동문은 전시공간이 없는 동네에 해당 플랫폼을 오픈함으로써 엉뚱한 맥락을 유발하고자 했다. 노동문은 2018년 'SeMA 벙커-Reversible Reaction', 2019년 그리스 아테네 'Andromachis 284 Kallithéa-Contemporary Archeologies', 2020년 울지로 'OF-SEISMIC WAVE' 등에 참여한 미술작가이기도 하다. 모교 졸업전시에서 큰 상을 받았던 그는 두 번의 졸업전시 이후 맞닥뜨린 지독한 현실 때문에 오랜 시간 슬럼프를 겪었고, 본인을 투영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혐오감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렇게 낙담과 실망을 반복하던 그는 끈질긴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

내가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서 나의 전시를 열자'는 결론을 내렸고, 그것은 곧 실린더라는 현실이 되었다. 그는 "실린더라는 공간의 사용 용도가 시시각각 변했으면 좋겠고, 공간의 크기는 작지만 그것이 실린더를 통해 일어나는 일에 제약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다. 농담 같기도 하고, 놀이 같기도 한 전시가 열리는 실린더의 첫 번째 전시였던 'AI VS AI'에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북극곰 형상의 무빙 오브제 Trojan X가 관람자의 초상화를 그려주었고, 두 번째 전시였던 'Chimera'에서는 인간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세 명의 작가가 모여, 그들의 작품을 개별적 조직 및 세포로 규정 짓고 전시 형식의 키메라를 만들어냈다. 그는 실린더의 전시나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대중들이 느끼는 동시대 미술과의 거리감을 많이 좁히고 싶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는 비엔날레 참여 아티스트를 서포트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아트바젤에 갤러리로서 참여하는 것과 같은 허무맹랑한 목표를 현실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동문은 모교 졸업후 영국왕립예술학교에서 조소과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모교 조소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앤아버영화제 초청 조우희(09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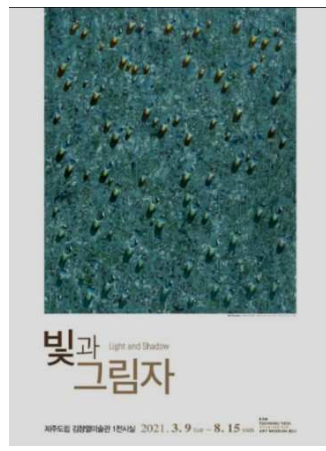


재미 시각예술작가 조우희 동문의 비디오 작품 'NSFW(Not Safe For Work Place): angry yellow meat'이 59년 전통의 실험영화제 'Ann Arbor Film Festival'에 초청·소개됐다. 1963년에 미시간주 앤아버에서 시작된 앤아버영화제는 조지 루카스, 구스 반 산트, 앤디 워홀, 제임스 베닝, 아그네스 바르다 등 유수의 감독들과 시각예술가들을 배출한 영화제로 유명하다. 올해는 3월 23~28일 6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조동문의 작품은 3월27일에 상영됐다. 4분 남짓으로 제작된 영상은 조동문이 2018년부터 2년간 리서치와 아카이브를 거듭하며 완성한 작품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종에 따른 스테레오타입과

권력 관계를 담고 있다. 작가는 "데이팅 앱이라는 사적이면서도 공개적인 공간에서도 백인과 동양인 등의 우위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며 "개인의 신체 노출이 어떻게 인종 간 권력 차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동문의 실험적인 작품들은 세계 곳곳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쇼앤티 2021 부활콜 프로젝트: '다시 만날 때까지'에서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팬데믹시대 예술의 역할에 질문을 던지고 지속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열린 전시에서 조동문은 코로나19 상황 속 미국 내 동양인 대상 증오 범죄를 다룬 비디오 작품 'singular'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4월 중순에는 시드니 월드필름페스티벌에도 초청돼 작품 'NSFW'를 소개한다. 조동문은 모교에서 시각디자인을, CalArts대학원에서는 순수미술과 통합매체를 전공했다. 서울과 LA를 오가며 정체성을 소재로 한 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작업을 하면서 사회가 구성하는 정상성 이성애 중심주의 가부장제의 모순을 폭로하고 의문점을 작품을 통해 제시해왔다.(사진=지난해 캘아트전 조동문의 NSFW영상이 포함된 작품)

한중기획전 ‘빛과 그림자’ 김창열(48회화)

 ‘물방울 화가’로 대중에게 알려진 김창열 동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자리가 제주와 중국에서 잇따라 마련됐다. 제주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있는 김창열미술관은 소장품 중 10여 점을 전시, 지난 3월9일부터 오는 8월15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빛과 그림자’로, 물방울 작품의 초기에서부터 회화성을 더하며 변화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김창열미술관은 50년 넘게 물방울을 소재로 삼았던 김동문의 작품 233점을 소장하고 있다. 제주는 김동문이 한국전쟁 당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며 예술혼을 불태웠던 인연으로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곳이다. 김창열미술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전시 관람을 회차별로 20명 이하로 제한했다. 미술관을 방문하려면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http://kimtschang-yeul.jeju.go.kr>)를 통해 관람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김창열미술관은 다음 달에는 중국 닝보시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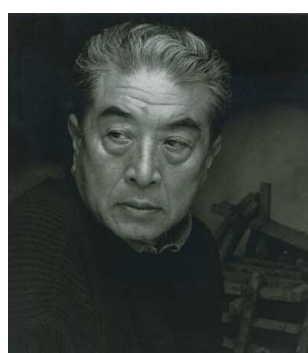
 관에서 김동문의 작품전을 열 예정이다. 중국 닝보시는 제주도와 자매결연한 도시로, 내달 현지에서 ‘제주도의 날’ 행사의 하나로 기획전을 마련했다. 김창열미술관은 앞으로 ‘김창열화백 추모사업’으로 서울추모공원에 흉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1월 92세의 나이로 별세한 김동문은 검정고시로 모교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이후 1957년 박서보, 하인두, 정창섭 등과 함께 현대미술가협회를 결성하고 앵포르멜 미술운동을 이끌었다. 60년대부터 국제무대로 눈을 돌렸던 그는 파리에 정착해 1972년부터 물방울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물방울 작가’로 유명해졌다. 김동문은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양국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프랑스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1996),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2013), 프랑스문화예술공로훈장 오피시에(2017)를 받았다.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오른 그는 한국 현대미술의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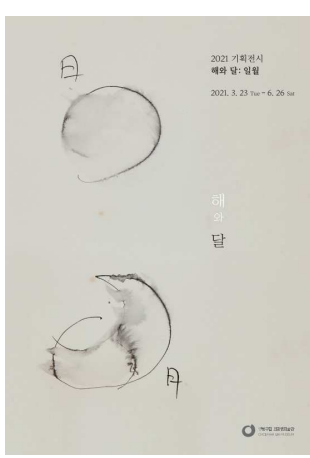
천안을, 보다 전영화(49회화)

 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천안시립미술관은 ‘천안을, 보다-해정(海丁) 전영화’ 전시를 3월 16일~4월18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해정 아틀리에, 새로운 미의식, 재료의 실험으로 구성되며 고향 천안에서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화상, 판화, 드로잉, 수묵화 등 다양한 장르의 52여 점의 작품과 자료를 통해 지역 원로작가 전영화 동문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전동문은 1929년 천안에서 태어나 천안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당대 최초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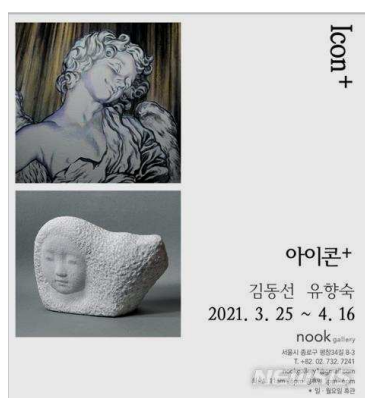
미술교육을 받은 1세대 작가로 지역과 시대성을 바탕으로 한국 고유의 전통 오방색 등 전위적이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수묵추상이라는 독자적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지역을 넘어 한국미술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아흔이 넘은 현재에도 천안미술발전에 대한 강한 애정과 고민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지역 미술 자료 발굴·수집·연구 등 지역 미술관으로의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천안시립미술관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출발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원로작가 전영화 화백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지역미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라며 “또한 미술관의 체계적인 지역미술 자료 수집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전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서 지역미술발전의 구심점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해와 달 : 일월 최만린(54조소)

 지난해 11월17일 세상을 떠난 추상조각가 최만린 동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 ‘해와 달: 일월’이 3월23일~6월26일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최동문이 30여년을 살았던 집을 개조한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의 2021년 첫 기획전이자 고인 타계 후 처음 열리는 개인전이다. 조각 16점과 드로잉 3점이 소개되는 이번 전시는 1970년대 초의 ‘일월’(日月)과 1990년대 중반 ‘O’시리즈 중 ‘해와 달’을 집중 조망한다. 최동문은 광복 후 유학이 아닌 한국대학에서 교육 받은 1세대 조각가로 그의 작품 속 해와 달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믿음, 생명의 율동과 순환 에너지를 통한 자연과의 공감, 동양 철학에 담긴 순환의 의미 등을 뿌리로 삼는다. 1971년작 ‘일월’은 1960년대 말 추상으로 변화를 탐구하던 시기의 작품으로 우주만물의 원리, 생명의 근원을 조형화한 작품이다. 1990년대 비움과 채움, 무위·공(空)으로 돌아가는 삶, 크고 작은 원(圓)으로 돌고 도는 땅

 과 우주 그리고 세계에 대한 상념들을 담은 ‘O’시리즈 속 ‘해와 달’은 생명의 가치, 민족정서와 개인의 소망 그리고 순환 사상을 아우르고 있다. 서울 중앙방송국(현 KBS) 아나운서 출신의 최동문은 정치인, 외교관을 꿈꾸던 경기중학교 3학년 시절 미술반 교사에 의해 조각의 기초를 다졌고 한국전쟁을 한해 앞두고 출범한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 ‘얼굴’이라는 작품을 출품해 입선했다. 모교 조소과에 입학해 일본 동경미술학교에서 유학한 김종영, 모교 1회 졸업생 김세중 교수로부터 사사했고 1957년 ‘모자상’, 다음해 ‘이브 58-1’로 국전 특선을 연달아 했다. 1958년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최동문은 록펠러재단 후원으로 미국 Pratt Institute에서 수학하고 1967년부터 2001년까지 모교 교수·학장을 지낸 후 명예교수로 임명됐다. 1994년, 1997년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2014년 대한민국 은관 문화훈장을 수상한 그는 1997년~1999년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지내면서 덕수궁 분관을 개관했고 서울관 건립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부부작가전 ‘아이콘+전’ 김동선(75회화)·유향숙(75조소)

 김동선, 유향숙 동문의 2인전 ‘아이콘+’전이 3월25일~4월16일 서울 삼청로 누크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누크갤러리가 4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의 ‘중간작가’들에 계속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취지로 기획한 전시이다. 누크갤러리는 2013년 개관할 때부터 매년 중견작가 후원 프로젝트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선, 유향선 동문은 부

부작가로 김동문은 이콘(icon 성상화)를 화두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초상을 강렬하게, 그리고 유동문은 자그마한 돌을 쪼아 고요하게 미소 짓는 소녀상을 만든다. 모교 입학동기로 대학시절 만나 가정을 이루고 6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함께하고 생각을 나누며 살아오고 있다. 빛과 어둠의 강한 대비를 이루는 바로크미술같은 초상화와 살며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소녀상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시류를 쫓지 않고 작가로서 자신들의 세계를 꾸준하고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는 작업 태도를 보여준다. 어둡고 고전적인 그림과 작고 부드러운 조각이 어우러지는 전시공간에서 두 작가가 오랜 시간 맞추며 살아온 강약의 균형을 찾아내어 새로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밤에도 빛나는 DDP_‘썩’ 최경란(81응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 동문은 지난 3월8일부터 4월10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밤에도 빛나는 DDP_‘썩’>展을 개최했다. 최동문은 “이번 전시는 청년 디자이너에게 DDP라는 디자인 메카에서 자신의 제품을 선보이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출발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DDP는 신선한 감각을 가진 젊은 디자이너들의 수준 높은 전시를 통해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청년 디자이너 시리즈’ 기획의 하나로 그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노란 모듈 스트럭처에 담아 전시했다. 디자인 제품을 위한 야외전시 전용 모듈 스트럭처는 투명렌즈를 통해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자체 조명을 통해 빛을 내는 크리에이티브한 전시 구조물로 전시 후 재사용이 가능하고 친환경 전시를 위한 용도로 쓰인다. 청년 디자이너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한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의 소상공인과 청년디자이너가 협업해 개발한 DDP디자인페어의 수상작품들과 비온드바우하우스프로젝트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디자인 제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봄을 그리다-Envisioning Spring 김덕기(89동양)



행복의 전령사 김덕기 동문이 ‘봄을 그리다-Envisioning Spring’전을 지난 3월12일부터 오는 6월16일까지 서울 아트스페이스에서 개최한다. 행복, 치유, 희망으로 대변되는 김동문의 작품세계를 통해 봄이 내재한 계절적 의미와 희망의 비유를 떠올리며 팬데믹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상을 그려보고 긍정의 기운을 되찾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는 200호 대작부터 소품까지 다양한 크기와 소재의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평범한 일상을 담아내는 그의 시선에



는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묻어있다. 가족과 일상의 소소함으로부터 발견되는 행복과 감사에 대해 섬세하게 화폭 속에 담아내는 그는 20년 동안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며 화면의 깊이를 만들어가고 있다. 언론사 기자들이 추천하는 올해의 추천작가에도 선정되었던 김동문은 국내 유수의 미술관 및 갤러리에서 전시를 가졌으며,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주상하이한국총영사관, 미국 Lawrence Schiller Collection, 아랍에미리트 사라마빈트함단알나얀재단, 독일 Dieter Holtz Collection 등 국내외 주요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Blue Mountain 임채욱(95동양)



사진작가 임채욱 동문이 3월24일~5월2일 개인전 ‘Blue Mountain’을 부산 해운대 뮤지엄다에서 개최한다. 임동문은 현대적인 사진과 전통 한지라는 상반된 매체 속 균형과 조화를 이끌어내어 현대적 진경산수를 제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겨울 덕유산에서 바라본 가장 푸른 쪽빛의 지리산의 풍광을, 한국 산의 전형적인 특징인 ‘겹침의 미학’과 ‘쪽빛의 가치’를 조명하는 작품들이 펼쳐진다. 2006년부터 카메라를 통해 한국의 산을 담아낸 임동문은 산을 피사체로 삼았지만 인화지 대신 동양화를 그릴 때 익숙했던 한지를 사진에 접목, 한지의 주



재료인 닥나무 고유의 결을 통해 질감과 깊이감을 만들어냈다. 산의 형상이 드러나는 윤곽을 마치 수묵화의 필선으로, 하늘과 구름, 눈 등의 요소는 여백의 미로 다뤄 수묵이 스며든 것과 같이 표현했다. 하지만 사진을 프린트할 수 있는 한지를 찾는 것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지의 보푸라기가 프린트 헤드를 막거나 색을 먹어버려 발색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국내 최대 한지업체를 찾아가 프린트용 한지를 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프린트하다 구겨버린 사진에서 찾아낸 시각효과로 사진을 구겨 일종의 환영으로 존재하는 입체감을 삼차원으로 확대한 부조작품도 볼 수 있다.

이른 봄 손동현(98동양)



전통적인 동양화 기법으로 대중문화 소재를 풀어내는 작업으로 주목받았던 손동현 동문이 3월4일~5월8일 서울 서초구 페리지갤러리에서 개인전 '이른 봄'을 개최한다. 작품 제목이기도 한 '이른 봄'은 중국 북송시대 화가인 곽희의 대표작 '조춘도'(早春圖)에서 따왔다. 작가는 자신의 시선으로 곽희의 '조춘도'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총 10폭의 산수화 한 점으로 그려냈다. 전통의 기법과 현재적 소재 결합을 시도했었던 손동문은 이번에는 전통과 현대, 대중문화와 순수 미술 같은 경계를 가진 것들의 조합보다는 이같은 요소를 뒤섞고 최대한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때문에 그의 산수는 어느 하나 고정된 형식으로 이뤄진 것이 없이 다양하다. 그는 '이른 봄'을 저 멀리 있는 아련한 풍경이 아니라, 확대되고 밀착된 동적인 흐름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그려낸다. 이는 과거의 관념적인 산수화도 아니고 실재를 담은 것도 아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을 다양하게 인지하면서 축적된 감각적인 풍경이다. 이번 작품에는 이전 그의 작품들과는 달리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크게 낯설지는 않다. 분무와 탁본 등 5가지 재료를 사용해 배채법, 그라피티, 만화 등의 기법으로 표현했다.

살아지는 나, 사라지는 너 이은경(02서양)



이은경 동문이 지난 3월3일~4월4일 '살아지는 나, 사라지는 너'전을 서울 북촌로 갤러리 제이콥1212에서 열었다. 전시장에는 무표정한 얼굴을 한 여성들이 도열해있다. 작가의 자화상이다. 그러나 이 얼굴들은 꼭 작가의 얼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이야기나 상황을 이야기하는 매개자로서의 얼굴이다. 전시는 이동문의 19점의 그림과 희정, 반야, 천주희의 글 세편으로 구



성됐다. 글은 이동문의 그림에서 출발해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정윤진 작가는 “그림과 글 속에서 작가들은 더듬거리며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듣는다. 들여다본 곳에 사람이 있다. 그것은 타인의 얼굴 혹은 자신의 얼굴 그리고 기억 속 어딘가 남아있던 누군가의 얼굴”이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유가 되어 사라지는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문은 러시아 생뻬제르부르크 국립아카데미 미술학교,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신간

빛소리 몽환도(스마트소설 한국작가선1)

주수자(72조소) 저 / 문학나무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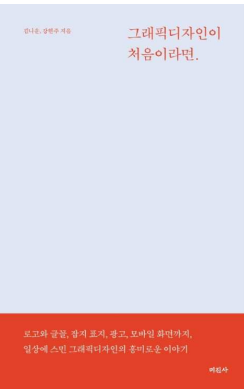


국내 베스트셀러 기록 후 영국에서 번역 출간돼 화제를 모은 도서 ‘빛소리 몽환도’ 개정판이 출간됐다.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빛소리 몽환도’는 지난해 12월, 영국 유수의 출판기업 Page Addie Press에서 번역되어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출간됐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출간과 함께 영국 최대의 체인 서점인 ‘Waterstones’를 비롯한 주요 서점에서 판매되며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국경을 초월한 문학적 감상은 국경의 벽을 초월하며 국내 출판계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인기의 배경에는 책의 독특한 구성이 크게 역할을 했다. 짧은 분량과 간결한 문체가 특징인 ‘빛소리 몽환도’는 기존 문학과는 사뭇 다른 매력으

로 독자에게 다가갔다.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본 소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 더욱 흥미를 유발한다. 연극과 웹툰의 형태로도 구성되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소설과 동명의 공연 ‘빛소리 몽환도’는 첫 상연 이후 관객들의 호평일색으로 올해 다시 단장해 무대에 오를 예정이기도 하다. 책은 읽는 행위를 마치 ‘몽환도’에 진입하는 것과 같다는 사상적 핵심을 바탕으로 쓰여 졌다. 이는 현실에 대한 부정이 아닌 현실의 확장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이러한 작품집의 구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판에서는 2개의 신작을 추가해 총 17개의 미니픽션을 만나볼 수 있다. 조각을 전공하고 소설가이자 희곡 작가인 그는 23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채로운 경험을 몸소 체험해왔다. 분야와 장르를 넘나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배경도 한 몫했다 한다. 이에 소설 속 내용을 빗대어 “우리의 의식과 언어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실에 그치지 않듯, 옥탑방을 단순히 협소한 공간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는 통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픽디자인이 처음이라면

김나운(디자인), 강현주(84산미) 저 / 미진사 발행



그동안 그래픽디자인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웠던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아이덴티티, 글꼴, 매거진, 광고, 캐릭터, 패키지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예로 들며 그래픽디자인의 정의와 범주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폴 랜드의 IBM 아이덴티티, 세기의 아트디렉터 알렉세이 브로도비치 같은 그래픽디자인 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고전부터 88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바탕체를 개발한

디자이너 최정호 등의 친근한 국내 사례까지, 국내외 그래픽디자인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디자이너와 그들의 위대한 작품을 장황하지 않게 핵심만 짚어 이야기해준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난 후에는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혼란스러웠던 그래픽디자인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픽디자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흥미를 갖게 해주는 상식이 담겨있는 책이다. 김나운 동문은 서울대와 스웨덴 콘스트팍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고, CI 전문회사인 울커뮤니케이션에서 일했다. 현재 인하대 디자인융합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디자인 리서치와 글쓰기, 기획에 관한 수업을 하고 있다. 강현주 동문은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디자인융합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디자인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다.

양혜규-O₂ & H₂O

양혜규(90조소) 저 / 현실문화A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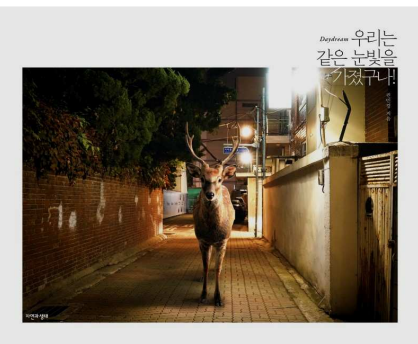


‘양혜규-O₂ & H₂O’는 전시 개막에 맞춰 먼저 출간된 비평 선집 『공기와 물: 양혜규에 관한 글 모음 2001~2020』과 짝을 이루는 출판 성과물이다. 선집 『공기와 물』이 국내외에서 생산된 수많은 비평 텍스트 중에서 엄선한 앤솔러지로서 양혜규 동문의 작품 세계 전반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전시 도록 『양혜규-O₂ & H₂O』는 무엇보다도 전시 경험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지 생산 단계에서부터 관람 동선에 따른 전시 광경이 꼼꼼하게 산정되어 촬영되었고, 세심하게 조율된 디자인적 배치 덕택에 오히려 현

장에서는 지각되기 어려운 전시장의 건축적 구조까지도 명확한 전시 경험으로 포괄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개별 작품들의 이미지가 작품에 관한 설명 텍스트와 함께 충실하게 수록되어 있다. 양동문은 모교 졸업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테델슐레 순수미술학부를 졸업한 뒤 1990년대 중반부터 서울과 베를린을 기반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독일에서 유망한 한국작가로 꼽혀 베니스비엔날레, 카셀도큐멘타13 등 저명한 국제 미술행사에 소개됐고, 파리 퐁피두센터, 뉴욕 현대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2001 독일 마리아지빌라메리안 미술상을 시작으로 2006 프랑크푸르트도서전개최 유공대통령표창, 2007 아트바젤 발루아즈예술상, 2010 김세중청년조각상, 2017 엘르스타일어워즈 아웃스탠딩아티스트, 2018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미술부문, 독일 볼프강한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슈테델슐레 순수미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시대 세계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는 같은 눈빛을 가졌구나! – Daydream

권민경(01서양) 저/ 자연과생태 발행



순수미술을 공부하고, 영화나 드라마에 쓰이는 정교한 매트페인팅(실사 배경)을 만들어 온 저자 권민경 동문이 실재와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합성 이미지로 꾸민 포토 에세이이자 아트북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찾은 평일 오후 동물원, 작가는 하이에나 한 마리와 눈이 마주친다. 그리고 그 권태로운 눈빛 속에서 바쁜 일상에 치여 지쳤던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생각한다. ‘너는 나, 나는 너. 우리는 같은 눈빛을 가졌구나!’ 이 순간을 계기로 저자는 동물원을 비롯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

계 안에 머무는 여러 동물을 찬찬히 바라보고, 어쩌면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을 지금 우리 모습도 돌아본다. 권동문은 모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페인팅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나 작업 매체를 디지털로 바꾸고 사진 합성을 이용한 이미지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2011년 디지털작업을 통해 만들어 낸 작품들로 첫 번째 개인전을 개최했고 영화 VFX 회사에 입사하여 6년 동안 영화나 드라마에 사용되는 정교한 실사 배경을 만드는 매트페인터로서 일했다. 순수미술 작가라면 으레 느낄 수밖에 없는 경제적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 선택한 취직이었지만, 그림 그리는 재주로 돈을 버는 일에 생각지 못한 재미와 보람을 느꼈다. 퇴사 후 순수한 창작의 즐거움과 자기 위안을 추구하며 만들기 시작한 ‘Daydream’ 연작으로 2020년에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권동문은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과 외부 세계의 관계에 대해 유심히 관찰하고 그 생각을 이미지와 글로 재미있게 풀어내는 작가가 되고자 한다.

전시

성명(가나다순)	전시명(개인전)	전시기간(3.1-31)	전시장소
김다운(09동양)	A Cup of Oasis	03.17 ~ 03.30	희수갤러리
김덕기(89동양)	봄을 그리다	03.12 ~ 06.16	소울아트스페이스
김선희(68응미)	제6회 김선희 개인전	03.15 ~ 04.15	오브제갤러리
노기쁨(12공예)	Patterns from figures	03.19 ~ 04.09	뉴스프링프로젝트갤러리
류종민(60조소)	류종민 초대전	03.02 ~ 04.05	스타필드 안성 작은미술관
민동기(99동양)	뒤로 걷는 사냥꾼	03.03 ~ 03.28	갤러리뎀 2전시장
박제성(98디자인)	자각몽	03.26 ~ 05.08	갤러리 퍼플
박종호(99서양)	사람을 보라.	03.10 ~ 03.28	플레이스막1
박주영(07동양)	바람부는 날	03.26 ~ 05.16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서용선(75회화)	서용선의 생각_가루개 프로젝트	03.12 ~ 04.24	갤러리JJ
손동현(98동양)	이른 봄	03.04 ~ 05.08	페리지 갤러리
유봉상(79회화)	유봉상 전: Immergé - Seeping into spac	03.25 ~ 04.14	오페라갤러리
유인수(66회화)	유인수초대전	03.30 ~ 04.11	세종갤러리
윤상희(석05공예)	그녀들의 이야기-Mysterious Women	03.24 ~ 03.2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갤러리
이민수(89조소)	순간에서 영원으로	20.10.10~21.05.30	피움미술관
이윤정(85동양)	채석강	03.02 ~ 04.16	60화랑
이종목(76동양)	Holy Paradox – 即非	03.12 ~ 04.09	유엠갤러리
임채욱(95동양)	Blue Mountain	03.24 ~ 05.02	뮤지엄 다 2층 기획전시실
임철순(74회화)	상황에서 시원적 공간으로	20.10.09~21.05.30	피움미술관
장규돈(05서양)	방향으로 이은 삶과 안개	03.24 ~ 03.30	갤러리도스
전영화(49회화)	천안을, 보다-해정(海丁) 전영화	03.16 ~ 04.18	천안시립미술관
최만린(54조소)	해와 달 : 일월	03.23 ~ 06.26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최선길(80회화)	songof1kyears(천년의 노래)	03.03 ~ 03.16	치악예술관
최혜민(02서양)	반복 ; haunted	03.11 ~ 03.26	아트스페이스 그로브
허보리(99서양)	Love My Hero	01.30 ~ 04.30	가나아트파크 어린이미술관 5전시
황창배(66회화)	의도를 넘어서 회화_숨은 그림 찾기	03.16 ~ 04.17	황창배미술공간

